

2024. 9. 23

LG 화학 051910

PPES 향 양극재 공급추진 보도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 6454-4867

wooho.rho@meritz.co.kr

LG화학의 PPES향 양극재 공급 추진의 언론보도

전일 9/22 LG화학은 PPES(Prime Planet Energy & Solutions)향 양극재 공급 추진 계획이 언론보도됨. LG화학의 일본 고객사 공급 개시는 2026년부터 유효. 양사간 협약으로 구체적 공급물량 및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음. 당사는 해당 공급추진 건에 양극재 Spec.은 NCMA 4만톤 규모로 추정함

PPES는 일본 Toyota 자동차 그룹과 배터리 Panasonic의 합작법인(51:49), 일본 Himeji 성에 소재. 합작사는 일본 내수 EV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각종 폼팩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목적으로 22.8월에 설립됨. 해당 법인의 초기 생산규모는 2024년 기준 7Gwh, 이후 생산규모는 추가 확대될 전망

(1) 시사점: 전지소재부문 자생력 강화 및 일본 내수향 '최초' 진입

LG화학의 양극재 중장기 성장전략은 (1) 생산Capa: 2026년 이후 47만톤 구축, (2) 고객사 다변화: LG에너지솔루션 외 고객사 비중 40%로 확대

동사가 확보한 고객사는 (1) 23.10월 미국 TEMA(Toyota Motor Engineering & Manufacturing North America, 도요타 북미 생산법인), (2) 24.2월 미국 GM, (3) 24.9월 일본 PPES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외 고객사 비중은 약 36%(중장기 생산 Capa 대비), 전지소재부문 자생력 강화 시도 중. 이번 PPES향 양극재 공급계약은 국내 양극재 기업들 중 일본 내수향 최초 진입, Application 다변화 가능성(Toyota의 EV→ Panasonic의 ESS), 2027년 EV 2차 Cycle을 대응하는 수주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2) 시사점: 확보된 레퍼런스 바탕으로 일본 고객사향 배터리 로드맵 동행

해당 계약은 NCMA를 기반으로 할 점. PPES는 2030년 Toyota의 EV 350만 대 생산을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셀 공급 역할, 배터리 Chemistry는 리튬이온 기반→ 중장기 전고체 전지(황화물계 및 고분자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PPES의 공급망에 낙점된 LG화학은 레퍼런스 기반(Knock-in) (1) 일본 PPES의 배터리 양산 로드맵, (2) 북미 Toyota EV(TEMA 및 LG에너지솔루션의 Toyota향 배터리 전용 설비) 전략에 동행 가능성을 높게 판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